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3월 31일 (제99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왜! 기도해야 하나?

성경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골4:2)고 하셨을까?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곁에서 졸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대화, 곧 기도하지 않으면 오해가 나고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되기에 시험에 드는 것이다.

둘째, 영감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로 이끌었는가? 오직 간절히 기도해서다. 나 역시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는다. 왜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사11:2). 셋째, 꿈같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곧 죽으니 유언하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15년 수명이 연장되는 꿈같은 기적을 맛보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귀환할 때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시126:1).

넷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사무엘상 2장에는 기도로 하나님이 닫은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얻은 한나의 노래가 적혀있다. 한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다.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 그의 목적은 대지를 적시겠다는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이 참 신(神)임을 자랑코자 하는데 있었다. 이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힘이다. 기도는 만사는 변화시킨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4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산상집회에 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철저히 준비했어도 점검하라

우리가 해외집회를 주최하는 목사에게 꼭 신신당부하는 체크리스트 중에 1순위가 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이기도 하다. 그들이 이초석 목사님을 초청하려는 이유는 영상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교회와 지역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영상마다 인파로 가득한 장면이 거저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자면 이초석 목사님만 모셔오면 절로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우리가 해외집회 초기

하는 집회인데' 하며 스스로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결과가 그러하니 이래저래 고통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며 번민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더니 마지막 날에는 집회장이 가득 차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집회에 임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략에서 당한 엄청난 수치를 일생의 거울로 삼았던 경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이성은 그야말로 한낱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는 작

점검해야 한다. 누수(漏水)는 지극히 작은 틈에서 일어나 전체를 무너뜨린다. 악한 마귀는 바로 우리의 방심이라는 지극히 작은 틈에 췌기를 박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온갖 부정적인 균을 전염시킨다. 그래서 매사 물샐틈없는 경계와 점검이 따라야한다.

이제 춘계산상집회다. 이미 목사님은 날씨와 오가는 차량과 성도들이 먹을 부식거리, 성도들이 거할 잠자리 등, 여러 제목들을 두고 기도로 준비하셨을 것이고, 직접 기도원으로 내려가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셨을 것이다. 이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리라.



값진 경험이었던 200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집회

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목사님도 자주 간증하시지만, 아르헨티나(Argentina)에 갔을 때 그 나라 최대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카니발(Carnival)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자기 교인들만 와도 차고 넘친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연 첫날, 집회장은 바닥만 겨우 차고 나머지 2, 3층은 행하니 비어있었다. 그날 밤, 통역을 담당했던 이현숙 선교사는 통곡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목사님 또한 이 선교사를 달래가며 기도하시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한다. 이 선교사로서는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래도 아르헨티나 최대 목사가

는 성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대참패. 이렇듯 방심은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불러올 수 있다.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결코 큰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대충, 얼렁뚱땅,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 '네 삶에서 <대충>이란 균을 잡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지 않는가.

계획을 세웠으면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원 집회는 항상 차고 넘쳤으니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너도 가자, 나도 가자'하는 참여의식, 동참의식이 중요하다. 어제가, 오늘이 그러했으니 내일도 그러겠지? 아니다. 어제 안 된 것이 내일 되는 수도 있지만, 어제 되던 것이 내일 안 되는 것 또한 인생이다. 그래서 매사 점검하고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성공의 요체이다.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점검만이 완벽한 성공을 낳는다.

이번 춘계산상집회에 모두가 참석하여 하나님의 축복 받을 절호의 기회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바란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일자: 4월 1(월)~ 4일(목), 장성 에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우리는 지난주일, 2002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가나 집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유심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때와는 다르게 영상이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보통은 집회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집회 전 홍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최측은 약 4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니 집회에 사람들이 시들한 나무 아래 조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니 정말 전혀 광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였는데, 그들은 그저 벽보나 붙이는 초보적 광고로 준비하고 있었습니 다. 황당했지요. 그러나 저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이미 지불된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이 집회를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홍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라디오 방송국 4개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며 직접 광고를 했고, 거리로 나가 시장 통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최선을 다해 집회광고에 진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하마터면 무산될 뻔한 집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고와 성공은 동반자요, 파트너입니다. 우리 집에 된장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저 자기 가족끼리만 먹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김치로 성공한 어느 연예인이 김치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자기엄마 김치가 하도 맛있었니까 친한 연예인들에게 맛보라고 촬영 때마다 조금씩 가져다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치를 먹은 연예인들이 ‘채네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입소문을 내니까 다들 ‘나도 나도’ 하다가 아예 장사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들이 즐겨먹는 김치라고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럼요, 광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최고의 물건이라도 모른다니까요.

광고는 생존전략이요 성공에 이르는 첩경이다

사실 우리 교회 해외선교의 지평을 연 것은 목회 초창기부터 무료로 세계에 보낸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였습니다. 그것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광고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오대양 육대주에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고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와 저를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도 광고의 중요성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4~15). 복음 전파가 됩니까? 곧 예수가 구원자임을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TV나 라디오, 신문 등 온갖 매체를 통해 광고에 열을 내는 겁니다. TV의 20초짜리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러나 그건 약과입니다. 슈퍼볼(미국 프로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의 광고료는 30초당 광고료가 자그마치 30억 이상이 랍니다. 초당 1억원 셈입니다. ‘미쳤군.’ 이럴 게 아닙니

다. 이렇게 광고료가 비쌌어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슈퍼볼에 광고를 내려고 난리를 치는 것은 그 효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슈퍼볼에 광고를 냈는데, 광고효과를 분석해보니 슈퍼볼 당일 현대차 검색 건수가 평소시보다 거의 500% 이상 많았고, 구매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차 한 대 팔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광고하는데, 몇 천 원짜리 과자 한 봉지 팔겠다고 온갖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데,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광고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이 됩니까? “나를 광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

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1:8~9).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을 소개하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건강과 지식을 주신 것은 그분을 광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광고하면 광고료 이상으로 구매 건수가 늘어 많은 이윤이 창출되듯 그분을 광고하는데 물질을 쓰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케 하시고, 그분을 위해 시간을 쓰면 시간이 남도록 지혜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텐데 왜 못합니까? 그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흡쇼

핑이 대세지요? 거기에 나와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들이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 니 다. 미 리 다 써보 고 나서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신 있게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남에게도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광고했던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마11:11).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아버지를 알지 못해 말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5).

여러분, 광고는 청각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것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보다 TV 광고가 더욱 효과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난 광고 전략을 쓰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모든 집회 전에 성령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달린다

여러분, 믿음의 선전들은 예수를 광고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곧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하고, ‘사마리아’, 곧 원수의 나라에도 전해야 하고, ‘땅 끝까지 가서’,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8~20). 제가 해외 목회자들을 불러 목회자 세미나를 열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짓던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중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그런 것입니다. 비싼 광고료는 냈는데 한 사람만 구매했다고 칩시다. 그럼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물건만 좋다면 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비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를 하든,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광고하세요. 광고와 성공은 반드시 정비례하니까요.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믿음의 선물

보호자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40톤 트럭과 충돌하여 자동차가 불타면서 온몸이 숯덩이같이 되었습니다. 숯덩이 같은 아이는 치료과정에서 손, 발가락, 코, 입술, 귀가 모두 떨어져 나갔고, 피부는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믿음으로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와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청소년 시절엔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 선수로도 이름을 날립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친 그는 전 세계인 앞에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독한 따돌림과 극도의 정신적 고통, 신체적 장애라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미국의 전 매스컴으로부터 들었던 조엘 소넨버그(Joel Sonnenberg)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은 실제로 얻게

된다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 모두를 화합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브리서 11:1)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Dr.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꽤 오랫동안 속이 좋지 않았는데 참고 있다가 얼마 전 배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위와 장에 있는 용종을 제거했다. 의사와 상담하니 “조직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결과 들으실 때 꼭 보호자 분과 함께 오셔서 들으십시오.” 한다. 듣기가 어색했다. 보호자? 내가 보호자였지 누가 나의 보호잔가? 짧은 의사가 나이들은 환자에게 하는 말로 넘기기에는 생각이 많아졌다. 상태가 안 좋을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

누가 내 보호자일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가 피보호자였던 기억이 없다. 떠올려봤다. 처자식 친지, 친구, 지금도 날 돕고 있는 옛 부하 직원. 정확히 말해서 아무도 나의 보호자가 아니다. 어찌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부모, 친지, 일가친척, 보호자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나 생각하니 자업자득이

란 생각과 함께 쓸쓸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 없는 삶으로 만드신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살면서 겪었던 죽음과 맞닥뜨렸던 순간들, 절체절명의 순간들, 사면초가의 순간들, 그때 누가 나의 의지가 되었는가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이셨다. 오직 예수님이셨다. 나는 그분으로 만족했고, 행복했다. 까짓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뜻 없이 부유하다가 사라질 인생, 무엇이 중할까. 내 갈 길 하늘 길, 그 길만이 내 삶의 전부요, 쫓대일 뿐이다. 그런 삶에 후회는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18:1~2).

이광주 전도사



:: 진리의 학당 ::

공중을 창조하심 (창세기 1:6~8)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유6), 그 안에 비눗방울과 같이 만드신 공간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하신 그 공간의 크기가 100억 광년이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실 일에 사용하실 궁창이 이토록 광대할진대(히1:10~12) 부활로써 들어가 세세에 통치하실 그 영광의 옥좌(玉座)는 과연 어떠한가(눅24:26, 히1:2,8, 계21~22장)? 궁창의 외벽은 수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창1:2) 마치 에텐동산을 화염검으로 결박해놓음과 같고(창3:24), 교도소에 죄수를 결박하고 철조망 치고 군인들이 보초 서는 것 같다 할 것이다. 이 안에 결박되던 아무도 나갈 수 없으니 궁창은 절대로 제한을 받는 시한적 물질계이다(벧후2:4, 3:10).

궁창을 ‘만유’라 함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 뿌려진 옷을 입고(계19:13)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입성하실 보좌의 현관과 같이 그의 공생애를 실현하실 처소라 함이요, 궁창을 ‘음부’라 함은 하늘에서 쫓겨나와 결박된 마귀를 심판하고 형

벌할 처소라 함이요, 그 음부를 ‘세상’이라 함은(요3:16) 선지자와 증인의 직분을 받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마중했고, 인자의 재림을 마중할 처소를 일컬음이니, 하나님은 만유와 사람을 지으시고는 매우 좋으셨으나 둘째 날 마귀의 감옥인 공중을 지으시고는 좋으실 일이 없으셨다.

하늘에서 추락한 마귀는(계12:9) 공중을 왕래하니 공중권세 잡은 자요(엡2:2), 인간을 사로잡고 물질세계를 주도하니 세상 임금이라(요16:11). 예수께서 가신 광야는 하와를 속인 들짐승이 있는 곳이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셨으니(눅10:18),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심판하려 음부에 들어오심이다(창3:15, 요일3:8, 행10:38).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세우신 영광의 보좌는 6일 창조로써 이루신 공중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라 일컫는 영계이니(고후12:2),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보좌가 있어 부활로써 승리하신 주께서 성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권좌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음부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교회에는 말씀이 있으므로 음부의 거짓이 지배하지 못한다. 또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므로(요1:4) 교회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 음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므로 어둠만 있으나(요1:5) 교회는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우리는 영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로 거짓의 아비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정복하고 귀신들을 처벌한다.“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우리의 육체는 잠시 음부의 영향을 받지만, 예수의 은혜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보좌에 오르신 일에 사용하신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보상이다(계22:12). 우리 장막 집을 벗으면 그 영광에 함께 이른다(고후5:1).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이루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계20:10)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계20:13~15, 마25:41).

이 땅에 한 번 출생한 육체는 반드시 종결이 온다. 지금은 구분이 없지만, 그때에는 당신 영혼이 알곡이였는지, 썩정이였는지 구별될 것이다(마3:12). 알곡은 궁창 하늘을 넘어 영광의 도성에 입성할 권세가 있지만 썩정이는 결코 궁창 하늘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영감의 세월을 살아야 할 터요(엡5:16), 그날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달려감이 지혜이다. 풍파 많은 나그네 인생, 종결되는 육체가 당신이라면 당신 존재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라 할 것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품위를 지키고 하늘 시민으로서 품격을 갖춰 살아야 할 이유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1:7). 박덕규 목사

위대한 유산

요즘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며 자신의 환경 탓만 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부자를 헐뜯고, 대기업을 비난하고, 자신의 일이 잘 안되는 것은 태어난 환경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 부유한 집의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 성공하는 것이고, 흙수저인 자신은 보잘것없는 집안 환경과 무능한 부모님을 둔 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된다고 늘 불평불만에 신세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 시골 마을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흙수저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저는 아버지의 성공 비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었냐는 저의 질문에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부지런함과 기도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삼남매를 비롯한 청년들의 나약한 믿음과 기도가 부족함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리 나태하냐?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그리 믿음이 연약하냐?’ 몇 시간 동안 훈계를 들으며 한참 동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의 부지런함과 총회장 목사님의 유별난 믿음, 이 두 가지 위대한 유산으로 성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 생활이 습관이 된 것은 할머니께서 부지런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

듯 부지런하다 못해 바지런하다는 그 말쑥이 딱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도 부지런하지만, 생각도 부지런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질문에 대해선 상대방이 어떠한 답을 할지 여러 경우를 생각하여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부지런히 그립니다. 한 가지의 질문마다 열 가지의 답을 예상하고, 각 경우에 따라 대응할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눈과 귀도 부지런합니다. 상대방이 지나치며 하는 사소한 말조차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나중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듣고 기억하는 아버지의 섬세함에 감동합니다. 눈은 얼마나 빠르고 밝은지 주일에 교회 가는 길에 저만치 지나가는 차가 어떤 분의 차인지 번호판만 보고 단번에 아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정말 유별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버지는 기도가 최고의 성공 비결이라고 고백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1시간, 잠자기 전 1시간씩 기도하고, 아침 예배시간엔 온 건물이 찰랑찰랑 울리도록 하늘을 침노하며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로님들 기도회를 잊지 않고 가시고, 교회 가는 날엔 항상 일찍 나가서 예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남의 재산이나 능력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데, 단 하나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수요일예배에 늦지 않게 도착하시려고 3~4시에 출발하신다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그 믿음이 부러워서 원래 7시 반에 출발하던 것을 7시로 당기고, 7시에서 또 6시 반으로

옮겨 어머니와 저는 일을 하다 말고, 밥을 먹다 말고 교회 가기 일쑤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삼남매에게 아버지 기준에 못 미치는 모습이 발견되면 아침 예배를 드릴 때도, 식구들끼리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든 상관하지 않고 시고 요즘 세대들은 상상도 못할 훈계를 하십니다. “일찍 일어나라, 기도해라, 공예배에 빠지지 마라.” 똑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무한 반복합니다. 우리 삼남매는 매번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고, 짜증도 났고, 심술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훈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유산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현재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불우하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형제는 금수저라서, 저기 저 자매는 은수저라서 그들만 누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인가요? 여러분들은 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회장 목사님의 유별난 믿음, 목사님의 영원한 친구인 기도와 노력,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어떠한 일도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유산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아닌가요?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유별난 믿음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김은유 집사

:: 생활 속의 잠언 ::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30여 년 전, 예수중심교회의 전신인 한국예루살렘교회에 입교한 이후, 지금까지 목사님께 강력하게 배운 것이 기도였다. 그 시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복음송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라는 곡이었다. 긴긴 시간 학원 사업에 종사를 해왔고, 지금도 거의 30여 년을 교육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한 우물을 파면서 길고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 그러다 수년 전 학원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였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여 무릎을 꿇고 다시 교육사업을 정상화시켰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느낀 것은 회의와 자책뿐이었다. 긴 세월 영어를 가르쳤던 영어선생이었지만 미국 여행에서 소통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영어회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름과 겨울 방학 영어캠프를 시작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나 작년 11월 레베카 유학센터를 오픈했다. 장소는 선교사로 떠난 친구가 가려해 보여서 따라갔던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는 못사는 나라,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라일 거라는 편견을 깬 것은 한순간이었다. 다문화로 형성된 이 나라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내가 원하는 고급 영어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각종 자원이 풍부한 부유한 나라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육의 천국이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열린 교육의 선진국이었다.

생각해보면, 글로벌시대에 가장 최적화

된 쿠알라룸푸르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보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도 아침이 시작되면 장소 불문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주절거리는 나의 찬송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나의 의지와 할 수 있다는 각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적보다 어렵지만 수십 년 퇴적암처럼 다져진 나의 기도와 찬송으로 날마다 기적 같은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의 여생도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주실 것을 믿으며 새로운 일을 찾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마음의 열쇠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문이 있다. 물론 주인이 그 문을 열고 닫지만, 밖에서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바로 인정과 공감이라는 열쇠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 공감 받았을 때의 만족감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남성들은 보통 인정에 대한 갈망이 더 크고, 여성들은 공감에 대한 갈망이 더욱 큰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남성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바친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반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와는 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감해주지 못하는 자와의 관계에는 선을 긋기 마련이다. 열쇠가 없는 외부인에게는 마음의 문을 꼭 닫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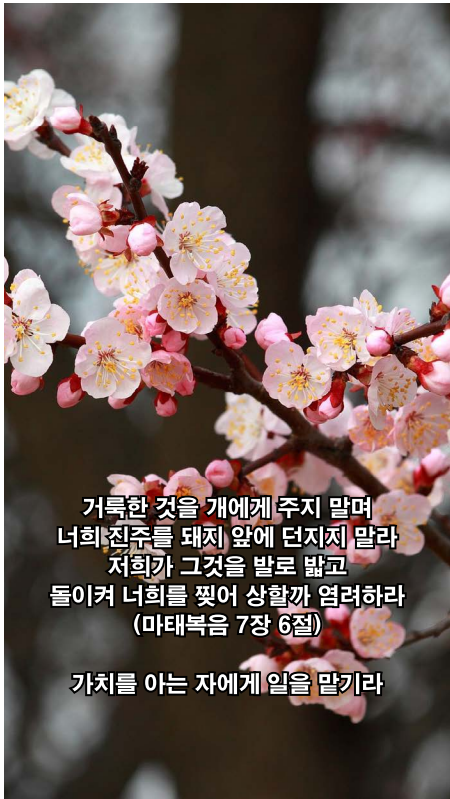
나는 아내의 마음 문을 언제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남편일까, 아니면 처음과 달리 지금은 그저 외부인일까? 나는 남편, 부모님, 자녀 마음의 열쇠를 가진 자일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적과 다름이 없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아픔을 공감해주시며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려고,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자체가 주님 마음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벧전3:8).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일을 맡기라